

# 광주 車 130억·문화 669억...전남 호남고속철 2단계 1460억 성과

## 광주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15억·수영대회 49억 확보 전남 광주~완도 고속도로 1449억 ... SOC사업 크게 늘어

광주·전남의 내년 국비 예산이 정부 예산안과 올해 확보액보다 크게 늘어났다. 양적 증가와 함께 역점·주력 사업과 관련된 내용 면에서도 만족할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광주, 車·문화·에너지 산업 탄력= 내년 국비 지원액은 모두 1조8292억원이다. 정부 예산안 1조7664억원에서 34건, 628억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올해 확보액보다 5.5%(960억원) 늘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130억원이 반영돼 민선 6기 광주시 최대 역점 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시민의 숙

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예산도 15억원을 확보해 최종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토지매입과 더불어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30억원이 늘어 49억원을 확보했다.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인 호남권 솔로몬 로파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1억원)도 반영됐으며 축구 전용구장 조성(18억원)도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첫발을 댔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관련, 수소 융합 충전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및 기술개발(50억

원),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51억원), 조경량 고강성 차체 새시부품 기술개발(30억원) 등 13건 262억원도 반영됐다.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61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 개발(484억원), 미디어아트 장의 도시 플랫폼 조성(10억원) 등 15건 669억원을 확보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11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설립(73억원), 차세대에너지기술개발(36억원) 등 11건 404억원이 반영됐다.

◇전남, SOC 큰 폭 증액=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3대 SOC 현안은 당초 건의액보다 많거나 근접하게 국비를 얻어냈다. 1000억원을 건의했던 호남고속철

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은 146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무안공항 경유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예산안 부대 의견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고 명시하는 성과도 올랐다.

건의액이 1000억원이었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역시 1449억원을 확보하면서 무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건의액이 3000억원인 남해안철도(목포~보성)는 국회에서 무려 650억원을 올려 2211억원을 얻어냈다.

특수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건의액(132억원)에는 못미치지만 국회에서 30억원을 증액해 57억원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

유로 충청·호남권 항공수요를 무안공항이 흡수하면서 활성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남해안 철도는 목포에서 부산(2시간 50분 소요)을 잇는 남해안 관광시대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까지 3대 대형 SOC사업 등이 추진되면 지역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1만6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지난 2007년 11월 개항 당시부터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공항 확주로 확장사업(2017년 건의액 20억원)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광양항 석유화학 돌핀시설(19억원), 전제 사업비가 400억원인 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 설계비(4억원) 등 신규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7년도 정부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	정부안	확정	변동
총지출	386.4	400.7	400.5	14.1
보안·복지·노동	123.4	130.0	129.5	-0.5
교육	53.2	56.4	57.4	1.0
문화·체육·관광	6.6	7.1	6.9	-0.2
환경	6.9	6.9	6.9	0.0
R&D	19.1	19.4	19.5	0.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16.0	0.1
SOC	23.7	21.8	22.1	0.3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6	0.1
국방	38.8	40.3	40.3	0.0
외교·종교	4.7	4.6	4.6	0.0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1	0.1
일반공공행정	59.5	63.9	63.3	-0.6

자료: 기획재정부

## 탄핵정국에도 ... 지역 예산 증액 열정적 노력

탄핵정국에서도 광주·전남지역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여야 당 지도부는 물론 예결위 소속 지역 의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배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에서 629억원이 증액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신성장산업 등 다양한 호남 지역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 박지원 호남고속철 655억 등 증액

### 김동철·박주선·이개호 예산확보 기여

국민의당도 호남 예산과 관련,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655억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사업에 65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30억원, 남북2축도로·동서2축도로를 비롯한 새만금 관련 예산 386억원 증액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트위터에 “내년도 목표 관계 확보된 국비 예산 3968억원과 금년도 잔여 예산 확보된 375억 총 4343억원에 대한 긴급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증가와 인상액 등, 조선업 구조조정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 밝

했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예산 외에도 남해안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 2억50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의 경우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6억3000만원)과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예산과 관련, 전년 대비 총 5281억원(광주 960억, 전남 4321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인 광주에서 1조 8292억원(신규 62건 753억원, 계속사업 174건 1조 7539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박주선 국회의장은 경제부총리 면담 등 정부와의 지속적·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 7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이개호 의원은 예결소위 위원으로 ‘일당백’ 활동을 해 호남고속철, 남해안 철도 등 118개 현안에 6833억원을 증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불 밝힌 분수대 성탄트리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2016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한민국 위기 상황서 퇴임 무겁고 착잡”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직 물러나는 박지원 의원

5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직을 마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퇴임하는 저의 심정은 매우 무겁고 착잡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말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 사임으로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된 그는 160일 동안의 직무수행을 마치고 5일 물러난다. 후



임 비대위원장은 4선의 김동철 의원이 맡아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이끌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원내대표직은 계속 수행하며 원내 활동을 지휘한다. 그는 “한 손에는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또 한 손에는 삼과 공평을 들고 신생정당의 기틀을 만들며, 슬퍼할 시간이 없는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며 회고했다. 이어 “국회에서 원내 제3당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고,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고 자평했다.

박 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국회와 우리 국민의당이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할 일을 찾아 앞장서겠다”며 “우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어제 준엄한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보았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헌법 절차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기에 더 안전한 수력,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지구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더하고 있습니다